



라쿤카페에 먹이주러 간다고요? 이젠 미등록시설서 체험 못해요



게티이미지뱅크

Cover Story ■ 야생생물법 개정안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와 죽임당하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동물도 인간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멀종 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 인격 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인격이 부여되면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 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됩니다.

해양 환경 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후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기사 3면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됐습니다. 라쿤카페, 토끼카페같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선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동물 전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업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150만 원, 4차 이상 500만 원 등 횟수별로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운송자는 야생동물을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야생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밖에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업 등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 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법의 개정으로 환경부는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라쿤카페 등 이색 동물 카페의 전시 및 체험이 금지되는 가운데, 향후 발생할 '학대'와 '유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색 동물 카페들이 폐업할 때는 물론 개인이 무단으로 사육하던 라쿤, 미어캣 등이 유기돼 도심에서 발견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빈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INSIDE



中 요소 통제 날벼락



7 '마음'이란 무엇일까



10 만물박사 줄기세포



12 운동중 이 빠졌다면

정보 비대칭이 가장 큰곳… 바로 중고차 시장이죠



최병일 박사의
말랑말랑 경제학

지난해 두 남성이 '당근마켓'으로 만나서 아색하게 물건을 거래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묘사한 유튜브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모티브가 된 '당근마켓'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근마켓 매출액은 약 257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대략 5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최근 중고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것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과 경기 회복이 더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앞서 소개한 당근마켓처럼 중고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성장해 거래를 활성화한 공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는 시장에서 물건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고 제품의 경우에는 정보의 차이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쓴던 휴대전화나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 때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단점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는 거래 전 잠깐 제품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 문제점들을 모두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할 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역선택 혹은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큰 중고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고 자동차 시장입니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잠깐 차를 둘러보거나 시험 운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안원 중고차 매매단지. 매경DB

**판매자가 고장 등 사고이력 감추면
살 사람은 '제품 문제' 알기 힘들어
저품질만 거래되는 '역선택' 많아
중고거래시장, 레몬마켓으로 불려**

역선택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레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영어권에서는 관용어로 잔 고장이 많은 중고차를 '레몬(lemon)'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의 레몬은 우리말로 '고물차'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몬이 왜 고물차를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의 '딱정벌레(비틀)'라는 소형차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폭스바겐의 '비틀'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생산돼 80년의 역사를 가진 스테디셀러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딱정벌레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잔 고장이 많은 고물차로 평가받았습니다. 소형차인 비틀은 연한 노란색의 차량 판매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성능이 좋지 못한 연노랑, 즉 레몬 색깔의 비틀은 저품질 중고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큰 시장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레몬 마켓'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 잔 고장이 많은 저품질의 상품만 거래되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똑같은 중고 자동차지만 특별한 사고가 없고, 이전 주인이 잘 관리했다면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자동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된 이력이 있다면 그 가치는 600만원으로 하락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구매자들은 어떤 차가 사고 경험이 있는지, 혹은 좋은 차인지 겉보기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둘 다 좋지 않은 자동차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판매자에게 800만원, 즉 두 자동차의 평균적인 가치로 거래하자고 제안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만일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800만원에 구입하면 이득이지만 6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사게 된다면 손해 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고 판매자를 설득합니다. 결국 사고가 없었던 좋은 차의

소유주라면 '그 돈을 받고 판매하느니 차라리 내가 더 타겠다', 아니면 '차가 없는 다른 가족에게 그냥 선물하겠다'라고 생각하며 판매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를 경험한 차량이거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함이 많은 자동차의 주인이라면 이런 제안을 승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주로 좋지 않은 자동차만 거래될 수밖에 없는 유인이 됩니다.

앞서 역선택 현상은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좀 더 정직해지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역선택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거짓으로 속여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사기', 즉 범죄입니다. 그런데 비대칭 정보로 발생하는 역선택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짧은 순간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다 얻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판매자가 굳이 소비자가 찾지 못한 불리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품질을 보증해주는 서비스나 중고 자동차에 대한 모든 사고와 법률적인 이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산업은 다르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은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는 '에어비앤비'·'구글'과 같은 회사가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알쏭달쏭 OX 퀴즈



-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상품 수입 제한이다. ()
- 중고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으로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
- 중고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

정답 1. × 2. × 3. ○

치소연 경비·여행 시장



ティ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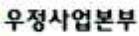
매일경제·금융저축정보센터 공동 기획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황대환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 다50736	
등록일 : 2022년 1월 28일	
간·별·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종로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메일 : teen@mk.co.kr	(02) 2000-2408 홈페이지 : teen.mk.co.kr
구독문의 광고문의	(02) 2000-2383 (02) 2000-2200



경제 공부의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후원 :



우정사업본부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올라타고 만지고… 동물 괴롭히면 과태료 물린다

동물원수족관법 Q&A

야생생물과 함께 개정된 법령이 또 있습니다. 동물 전시 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동물 복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수족관법)입니다. 환경부는 이 법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 국내 동물원 현황은.

A. 국내에 등록된 동물원은 총 114개소입니다. 24개소의 공영동물원과 90개소의 민간동물원에는 총 4만 8911종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야외 공간 없이 실내 공간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4개소 중 48개소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간동물원은 '체험형'의 오락 위주 형태입니다. 민간동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실내동물원에서는 야생동물도 3평남짓의 공간에 간혀 작은 구멍을 통해 먹이를 받아 먹는 체험에 이용됩니다. 공영동물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대공원에서 폐사한 177마리의 동물 중 54%는 질병·사고사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대공원에서도 590마리의 동물이 질병과 사고사로 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영동물원은 개소 이후 사육환경의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Q.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배경은.

A. 기존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의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이를 학대로 규정합니다. 동물에게 약물·폭력 등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지하는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의 정형행동(스트레스에 따른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협소한 서식환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만 언급했을 뿐 개체별로



**동물학대 막으려
등록제→허가제로**

**기존 업체는 5년 유예
학대방지 대책 없어 논란**

알맞은 서식환경 기준과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처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야외 방사장 의무 확보 등의 규정이 삭제되며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실내 동물원의 숫자가 12개에서 46개로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이름뿐인 법이 동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Q.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A. 개정 후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영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됩니다. 허가 요건과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해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 검사관을 도입해 보유 동물 관리 또한 활저히 합니다. 검사관은 수의사 취득 후 동물원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물원 종사자 중 근무 기간이 7년 이상인 사람,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중 위촉이 가능합니다.

학대 행위의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개정 후부터는 동물을 동물원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거나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이 모두 금지

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A. 개정안이 공개됐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동물복지 저해행위'라는 학대 행위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금지 행위에 대한 처분이 벌금이 아닌 과태료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예기간 내에 허가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지만, 5년 동안 다시 고동반을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운영난에 빠진 동물원들이 사육과 관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좁은 동물원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에 대한 시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원이 인간의 오락을 위한 '전시 공간'이 아닌 보존과 연구·돌봄의 공간이 될 때 비로소 그곳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동물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개 식용금지법 연내 통과 청신호… 일각선 “폐업 지원해달라”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육견협회의 반대 시위 도중 경찰과의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운석열 당시 후보자가 개 식용 금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국정과제로도 설정했고,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외교 장관과의 자리에서 동물권 관련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눈 사실이 보도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뒤집었습니다.

여야 또한 개 식용 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장을 모았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겠다"며 입법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는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도축 환경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해 왔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용 개가 길러지기에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식용 개 산업 종사자들은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근거로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한육견협회·대한육견연합회·대한육견상인회 등은 서울 용산구 대동령실 앞에서 강도 높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개고기를 먹고 있는 1000만 국민,

축산(식용)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특별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위자들이 차량에 태운 개들을 내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총들이 발생해 3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등이 발의한 총 5개의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 등의 입법 반대 시위가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장성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가격통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능 사탐영역 주요 경제 문항 해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경제 문항은 전통적인 빙小子 주제부터 생활금융 주제까지 심도 있게 출제됐습니다. 7번 문항은 가격 통제 정책이 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가격, 거래량, 후생)을 이해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가격을 통한 시장 교환 체계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고급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경제 성장을 같은 비율 변수를 바탕으로 실질 GDP나 물가와 같은 레벨 변수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수리 논리력 측정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은 구체적인 산식을 동원하지 않고 각 변수의 정의와 변수 간 관계를 동원해 추론해야 합니다. 국제무역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기초로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는 원리를 묻는 9번과 관세 정책이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묻는 14번, 두 문항이 출제된 것도 눈에 띕니다.

15번은 주식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과 환위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실제 투자나 경제활동 경험에 적은 고교생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연습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지식만 응용해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 추세하에서 경제 교양과 생활금융 차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수능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경제·금융 교육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몇 흥미로운 문항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소개합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표는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X재와 Y재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교역 전 X재와 Y재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갑국의 X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80개이고, 을국의 Y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90개이다. 양국 모두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한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뤄지고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은 동일하며, 생산된 재화는 모두 소비된다.

- ① 을국은 X재 60개와 Y재 5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 ② X재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이 갑국의 1.5배이다.
- ③ 교역 후 갑국의 X재로 표시한 Y재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 ④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5:3이면 양국 간 교역은 이뤄지지 않는다.
- ⑤ ④이 '21'로 변동하여도 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재화는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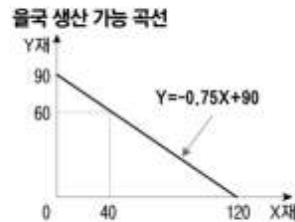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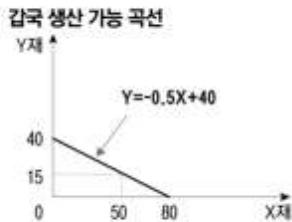
(해설)

갑국·을국의 X재·Y재 생산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국) X재 50개와 Y재 15개, X재 80개와 Y재 0개

(을국) X재 40개와 Y재 60개, X재 0개와 Y재 90개

각국의 생산조합과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라는 사실에서 두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림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X재와 Y재 생산 시 기회비용(X재 생산 시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양, Y재 생산 시 포기해야 하는 X재의 양)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작으므로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이때 교역조건(X재와 교환되는 Y재의 양)이 0.5~0.75에서 형성되면 각국은 각자 비교우위가 있

는 재화만 특화 생산하고 자국에서 생산을 포기한 재화는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해 소비하게 됩니다.

구분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	Y재 1/2개 (=0.5개)	X재 2개
을국	Y재 3/4개 (=0.75개)	X재 4/3개

- ① 을국은 X재 60개 생산 시 Y재 45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 ② 갑국이 X재만 생산할 때 80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X재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노동량/80'이며, 을국의 노동량은 '노동량/120'입니다. 따라서 X재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이 갑국의 2/3배입니다.
- ③ 교역조건이 0.5~0.75일 때 '특화 생산 및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교역'이 이뤄집니다. 교역 후 갑국이 Y재 소비 시 포기해야 하는 X재의 양은 4/3~2로 교역 전의 값 2보다 작습니다. 즉,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Y재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을국으로부터 교역조건에 따라 수입해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 ④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5:3이면 X재 1개와 교환되는 Y재의 양은 0.6개로 양국이 '특화 생산 및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교역'에 임하도록 하는 교역조건 0.5~0.75를 충족합니다.
- ⑤ ④이 '21'로 변동하는 경우 갑국이 X재 1단위 생산 시 기회비용은 Y재 21/30 개로 을국(0.7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이 각각 X재 생산과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답 ⑤.

12. 표는 갑국의 연도별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과 경제 성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9년이고, 물가 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명목GDP 증가율(%)	0	1	5
경제 성장률(%)	-5	1	4

- ① 2020년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다.
- ② 2021년 실질 GDP와 명목 GDP는 같다.
- ③ 2020년 물가 수준은 2021년보다 낮다.
- ④ 2022년의 경제 규모는 2019년보다 크다.
- ⑤ 2022년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2021년보다 높다.

(해설)

명목 GDP는 해당 연도 가격으로 GDP를 측정한 것이고, 실질 GDP는 기준 연도 가격으로 GDP를 측정한 것입니다. 또 GDP디플레이터는 실질 GDP에 대한 명목 GDP의 백분비, 즉 '(명목 GDP/실질 GDP) × 100'입니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을 뜻합니다.

- ① 명목 GDP는 일정(0% 증가)한데 실질 GDP는 감소(-5% 증가)했으므로 GDP디플레이터는 증가합니다. 기준 연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음)이므로 2020년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큽니다.
- ② 경제성장률과 명목 GDP 증가율이 같다는 것은 GDP디플레이터가 일정(0% 증가)하다는 의미이지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③ 2021년의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0%이므로 2020년 물가와 같습니다.
- ④ 실질 GDP 크기로 측정하는 경제 규모는 2020년에 전년 대비 5% 감소, 2021년에 전년 대비 1% 증가, 2022년에 다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면 2022년 실질 GDP는 2019년보다 작습니다.

가령 2019년 실질 GDP를 '100'이라고 하면 2020년 실질 GDP는 '95', 2021년 실질 GDP는 '95(1+0.01)', 2022년 실질 GDP는 '95(1+0.01)(1+0.04)'이고, '(1+0.01)(1+0.04) ≈ 1.05'이므로 2022년 실질 GDP는 95보다 5% 가량 큰 값으로 100보다 작습니다.

- ⑤ 2022년의 경우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하므로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양(+)의 값(1%)을 가집니다. 2021년의 GDP디플레이터는 전년과 동일하므로 GDP디플레이터 증가율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은 2022년이 2021년에 비해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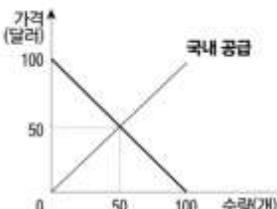
정답 ⑤.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환위험 계산하면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무역 이전인 t기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t+1기에 갑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국제 가격 (가) 달러에 X재를 수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 잉여가 t기에 비해 1,050달러 감소하였다. t+2기에는 갑국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 1개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 잉여가 t+1기에 비해 600달러 증가하였다. 단, 갑국에서 생산된 X재는 전량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국제 가격은 변함이 없으며,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은 변동이 없다.

① (가)는 '10'이다. ② t+1기 국내 소비량은 t기보다 40개 많다.
 ③ t+2기 관세 수입은 800달러이다. ④ t+2기 수입량은 t+1기보다 40개 적다.
 ⑤ t+2기 국내 소비자 잉여는 t+1기보다 1800달러 적다.



(해설)

구분	(기) X주식 기대 수익	(나) Y주식 기대 수익	원리금
〈상황 1〉	$(100\text{만 원} \times 1.2) \div (1.100\text{원}/\text{달러})$	$1.000\text{달러} \times 1.3$	1.100달러 (또는) $1.100\text{달러} \times (1.100\text{원}/\text{달러}) = 1.210.000\text{원}$
〈상황 2〉	$(100\text{만 원} \times 1.0) \div (700\text{원}/\text{달러})$	$1.000\text{달러} \times 0.9$	1.100달러 (또는) $1.100\text{달러} \times (700\text{원}/\text{달러}) = 770.000\text{원}$

① 원리금 1100달러의 원화 환산 금액은 〈상황 1〉의 경우 121만원으로 〈상황 2〉의 77만원보다 44만원 더 많습니다.

② 〈상황 1〉의 경우 X 주식에 투자할 때 기대 수익은 약 1090달러로 원리금 1100달러에 미치지 못하므로 순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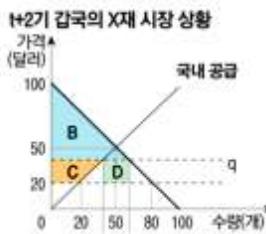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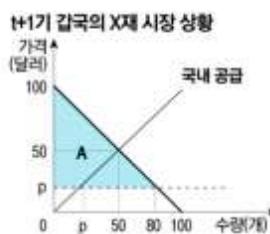
③ 〈상황 2〉의 경우 X 주식 투자 시 달러화 가치 30% 하락에 따른 환차익을 얻지만 Y 주식 투자 시 가격 하락에 따른 자본 손실을 입습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은 X 주식이 더 크며, 원리금이 같으므로 순수익도 X 주식이 더 큽니다.

④ X 주식 투자 시 순수익은 〈상황 1〉의 경우 약 '1090달러 - 1100달러 = -10달러', 〈상황 2〉의 경우 약 '1428달러 - 1100달러 = 328달러'로 약 338달러 차이가 있습니다. Y 주식 투자 시 〈상황 1〉의 경우 '1300달러 - 1100달러 = 200달러', 〈상황 2〉의 경우 '900달러 - 1100달러 = -200달러'로 400달러의 차이가 있습니다.

⑤ 순수익은 〈상황 1〉의 경우 '(50만원 × 1.2) ÷ (1100원/달러) + 500달러 × 1.3 - 1100달러'로 이를 정리하면 약 '500달러 × 2.39 - 500달러 × 2.2'가 되고, 〈상황 2〉의 경우 '(50만원 × 1.0) ÷ (700원/달러) + 500달러 × 0.9 - 1100달러'로 이를 정리하면 약 '1164달러 - 1100달러'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순수익은 양(+)입니다.

정답 ⑤.

(해설)



- ① 자유무역 이전 생산자 잉여는 $(50\text{달러} \times 50\text{달러}) / 2$, 즉 1250달러입니다. 무역 이후 생산자 잉여는 1050달러 줄어 200달러입니다. 무역 이후 X재 국제 가격을 P라고 하면 ' $P^2 / 2 = 200$ '이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 $P=20$ '입니다.
- ② 국내 소비량은 무역 이전 50개, 무역 이후 80개입니다. 따라서 무역 이후 X재 소비량은 이전보다 30개 더 많습니다.
- ③ 관세 부과 시 X재 국내 가격이 q로 상승하므로 생산자 잉여가 C만큼 증가합니다. C의 크기는 600달러이므로 q는 40입니다. 따라서 관세 수입 D는 20달러/개 × 20개, 즉 400달러입니다.
- ④ t+1기 수입량은 60개, t+2기 수입량은 20개이므로 t+2기 수입량은 t+1기보다 40개 적습니다.
- ⑤ t+1기 소비자 잉여 A는 $(80\text{달러}/\text{개} \times 80\text{개}) / 2$, 즉 3200달러이며, t+2기 소비자 잉여 B는 $(60\text{달러}/\text{개} \times 60\text{개}) / 2$, 즉 1800달러입니다. 따라서 t+2기 소비자 잉여는 t+1기보다 1400달러 더 적습니다.

정답 ④.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t시점에 연 이자율 10%로 1000달러를 1년 만기로 대출받아 (가), (나) 중 하나에 1년간 전액 투자하여 순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원리금

구분	환율	한국 주식 X 가격	미국 주식 Y 가격
〈상황 1〉	10% 상승	20% 상승	30% 상승
〈상황 2〉	30% 하락	불변	10% 하락

1100달러는 t+1년 시점에 한꺼번에 상환한다. 순수익은 보유 주식의 t+1년 시점 원화 환산 금액에서 원리금의 t+1년 시점 원화 환산 금액을 뺀 값이다. 단, 세금이나 수수료 등 거래 비용과 배당 수익은 없다.

(가)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 주식 X 매입 (나) 미국 주식 Y 매입

위 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t시점 대비 t+1년 시점의 원/달러 환율과 주식 가격의 변동을 나타낸다. t시점 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① 원리금의 원화 환산 금액은 〈상황 1〉이 〈상황 2〉보다 40만원 더 많다.

② 〈상황 1〉의 경우 (가)에 따른 순수익은 0이다.

③ 〈상황 2〉의 경우 (가)보다 (나)에 따른 순수익이 더 크다.

④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두 상황 간 순수익의 차이가 더 작다.

⑤ 투자 금액을 (가), (나)에 절반씩 배분한다면 두 상황 모두에서 순수익은 양(+)의 값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은 X재와 Y재만, 을국은 Z재만 생산한다. X재와 Z재는 생산된 나라에서 최종재로만 전량 소비된다. Y재는 X재 또는 Z재 생산 원료로만 사용되며 X재 1개 생산에 Y재 0.5개, Z재 1개 생산에 Y재 0.1개가 사용된다. 표는 2021년,

2022년 양국의 각 재화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내며, 기준 연도는 2021년이다. 단, 생산된 재화는 그해에 모두 소진되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거래 비용은 없다. 또 양국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각 재화의 가격은 양국에서 같다.

① ⑦과 ⑧의 합은 30이다. ② 갑국의 2021년 명목 GDP는 340만달러이다.

③ 갑국의 2022년 GDP 플레이터는 180이다.

④ 을국의 2021년 순수출은 40만달러이다.

⑤ 을국의 2022년 실질 GDP는 1450만달러이다.

구분	2021년		2022년	
	생산량	가격	생산량	가격
갑국 X재	20만개	10달러	20만개	20달러
갑국 Y재	⑦	⑧	⑨	⑩
을국 Z재	40만개	20달러	50만개	30달러

(해설)

① 2021년의 경우 X재 1단위 생산에 Y재가 0.5개 쓰이므로 ' $20\text{만개} \times 0.5 = 10\text{만개}$ ', Z재 1개 생산에 Y재가 0.1개 쓰이므로 ' $40\text{만개} \times 0.1 = 4\text{만개}$ '입니다. 따라서 ' $\textcircled{1} = 14$ '입니다. 2022년의 경우 ' $20\text{만개} \times 0.5 = 10\text{만개}$ ', ' $50\text{만개} \times 0.1 = 5\text{만개}$ '이므로 ' $\textcircled{1} = 15$ '이고, ' $\textcircled{1} + \textcircled{2} = 29$ '입니다.

② 갑국의 2021년 명목 GDP는 ' $20\text{만개} \times 10\text{달러}/\text{개} + 4\text{만개} \times 10\text{달러}/\text{개} = 240\text{만달러}$ '입니다.

③ 갑국의 2022년 명목 GDP는 ' $20\text{만개} \times 20\text{달러}/\text{개} + 5\text{만개} \times 10\text{달러}/\text{개} = 450\text{만달러}$ ', 실질 GDP는 ' $20\text{만개} \times 10\text{달러}/\text{개} + 5\text{만개} \times 10\text{달러}/\text{개} = 250\text{만달러}$ '이고, GDP 플레이터(=실질 GDP에 대한 명목 GDP의 백분비)는 180입니다.

④ 2021년 을국은 Z재 생산을 위해 갑국으로부터 Y재 4만개를 해당 10달러에 수입했으므로 2021년 순수출은 ' $4\text{만개} \times 10\text{달러}/\text{개} = 40\text{만달러}$ '입니다.

⑤ 2022년 을국은 Z재 생산을 위해 갑국으로부터 Y재 5만개를 해당 10달러에 수입했고, 해당 20달러인 Z재를 50만개 생산했으므로 실질 GDP는 ' $50\text{만개} \times 20\text{달러}/\text{개} - 5\text{만개} \times 10\text{달러}/\text{개} = 950\text{만달러}$ '입니다.

정답 ③.

30초만에 문딴 열쇠공에… 수리비 4만원 불공정하다?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A. 발표 자료가 들어 있는 서랍이 잠겨서 마음을 졸였겠네요. 열쇠 수리 아저씨가 빨리 열어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잠긴 서랍을 여는 데 30초밖에 안 걸렸는데, 4만원을 내려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엔 현관문 잠금을 번호 키로 하지만, 예전엔 열쇠를 주로 썼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도 제가 열쇠를 안 들고 나왔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히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도 열쇠 수리 집에 연락했고, 열쇠 수리공이 도착했습니다. 금방 집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빼걱빼걱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이마에 땀방울이 맷히기 시작 하더니 얼굴, 목덜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덥고 힘들어서 차에 가서 에어컨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고, 두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보니 아저씨의 얼굴은 별걸게 달아올랐고,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아유, 이거 보통 열쇠가 아니구먼. 내 젖 먹던 힘까지 써서 돌리다 보니 이 뭐나 잠금이 망가져 버렸어.”

“아, 그럼 잠금장치도 다시 달아야겠네요.”

아저씨가 수리하다가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바람에 잠금장치도 새로 달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7만원을 냈습니다. 잠긴 문을 연 비용 4만원과 잠금장치 3만원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두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고 생각하니 7만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시원한 음료라도 드시라고 텁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열쇠를 안 들고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때도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Q. 저는 책상 서랍을 항상 잠그고 다닙니다. 서랍 안에 일기장이나 USB 같은 개인적인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쇠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시간 후 중요한 발표를 해야 했는데 자료가 서랍 속 USB에 들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출장 나온 아저씨는 고리 같은 걸 넣어서 몇 번 끌깍하더니 30초 만에 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비용으로 4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30초 만에 열었는데 4만원이라니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일한 시간 대비해 비싸 보이지만
그 이전 기술 축적시간 간과한 것
2분 만에 그린 초상화 값이 5천원
피카소 “내 평생에 2분을 더한 값”
서비스가치와 공정함은 별개 문제**

그런데 이번엔 1분 만에 끌깍하고 열었습니다. 처음엔 ‘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리비용이 4만원이라고 말씀하시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밖에 안 걸렸는데 4만원이라니! ‘저분은 시간당 임금이 240만원인 건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4만원을 드리긴 했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사워하는 중 문득 ‘지난번과 똑같은 서비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는 기다린 시간도 더 길고, 잠금장치까지 고장 내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열쇠 수리공이 오랜 시간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고생했으니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잘긴 문을 금방 열어준 분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 아닐까요? 이분도 초보일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문을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좋아지면서 금방 열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 혈관이 가늘어서 바늘이 들어가면 잘 터지는 편입니다. 능숙한 분은 한 번에 혈액을 채취하기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은 자꾸 실패해서 고생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찌르다 일곱 번 만에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열쇠 수리도 마찬 가지일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문을 연 편이 제가 받은 혜택은 더 큰 건데, 두 시간 걸려 열고 잠금장치까지 망가뜨린 경우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있지만,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와 비슷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공원에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와 초상화를 그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성의 잠깐 살펴보고 일필휘지로 휘리릭 초상화를 그려서 건넸습니다.

“와, 어떻게 제 진짜 모습을 이렇게 금세 포착해 내셨나요? 놀라워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500달러요.”

“네? 단 2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어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려고하세요?”

여성분의 항의에 피카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 2분이라니 무슨 말씀을요. 내 평생의 시간에다 2분이 더해진 시간이 걸린 건데요.”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실험경제반 운영

“생년월일 입력하면 아이템 공짜”… 청소년 울리는 금융사기

퍼핀이 들려주는 용돈 생활

중학생 최모군은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다가 ‘본인 인증을 하면 유료 아이템을 공짜로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평소 가지고 싶던 아이템을 공짜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개인정보를 보냈고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얼마 후 최모군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소액 결제가 이뤄지고 요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최모군의 번호로 다양한 불법광고문자가 발송됐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온라인 게임, SNS상에서 청소년을 노리는 금융범

죄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법을 알아보고 피해에 대처하는 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경품을 준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게임 아이템, 상품권, 의류, 신발과 같이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물건을 공짜로 준다면 유흥하는 수법입니다. 경품을 받으려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대화를 이어가보다는 아예 답장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2.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수법

아르바이트에 필요하다며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이를 불법자금 유통,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는 경우 절대 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입금해준다는 수법

SNS에서 ‘댈입(대리 입금)’ ‘댈구(대리 구입)’를 해준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대출 업체가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물건 값을 입금해주고 이를 더해 돌려받는 수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인데 불법대출 업체들은 이를 초과해 더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돈이 꼭 필요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족에게 먼저 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 중국산 쓰는데…‘요소’ 수출통제 날벼락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진열된 자동차용 요소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요소 더 옥죈다…수출 퀼터제 추진

중국이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요소 퀼터제’를 시행하겠다고 현지 비료업체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음. 요소 공급난을 우려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요소 수출 물량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차량용 요소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 요소 수입이 막히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D공포 덮친 中…韓수출 불똥 우려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マイ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중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를 기록하면서 10월 (-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짐.

당초 시장 전망치 (-0.1%)에도 크게 못 미쳤고 하락폭이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큼.

집값 거품 깨지자. 계층 격차 줄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지난해 상하위 가구 간 자산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며 계층 간 소득 격차도 줄었고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떨어지면서 서운석열 정부 들어 양극화 해소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옴.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과도하게 올랐던 집값이 연착륙하면서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

전지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NIE 준비하기

1. 요소 수출 물량 퀼터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2.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알아봅시다.
3. 전 세계 공급망 전쟁을 알아봅시다.

NIE 준비하기

1. 디플레이션의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2.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원인을 알아봅시다.
3. 디플레이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NIE 준비하기

1. 지니계수의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2.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3. 집값 하락이 분배지표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로 풀어보는 뉴스상식

다음 빙간 A에 들어갈 용어는?

(A.)는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신조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 후 찾아온 빈대의 갑작스러운 출몰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제물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반면 국내외 여행 수요가 위축되면서 여행업계에도 짧간불이 켜졌다. 빈대 퇴치법 및 살균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해충이 쉽게 살 수 없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특수 침구 판매량도 눈에 띠게 증가하는 추세다. 빈대는 전염병을 옮기지 않지만 빈대에 물리면 심한 가려움증,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① 인포데믹
④ 트리플데믹

- ② 빈데믹
⑤ 엔데믹

- ③ 팬데믹

정답 ②. 빈데믹에 대한 설명이다. 빈데믹이란 ‘빈대’와 ‘팬데믹’을 합성한 신조어다. 최근 국내에서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빈대가 재차 확산하면서 소비 지향을 바꾸고 있다. ‘베드버그(bedbug)’로도 불리는 빈대는 주로 침대 등에 서식하며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한다. 침대 매트리스나 머리판, 침구류 등에 서식한다.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빈대에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① 인포데믹이란 정보(information)와 유행병(epidemic)을 합성한 용어로, 정보전염병으로도 불린다. 왜곡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져 정치, 안보,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③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트리플데믹은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삼중 대유행을 의미한다.

⑤ 엔데믹이란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뜻하는 것으로, 말라리아·뎅기열 등이 이에 속한다.

조선의 실학자들, 민생 등진 '유교꼰대'에 맞서다



조인 강사의
한국사 옛보기

“…왜란 이후 법도가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이 어지러워졌다. 군영을 늘리면서 국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탐학의 풍조가 크게 일어나 백성들은 초췌해졌다. 일찍이 내가 생각하건대 병들지 않은 터逖이 하나도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어찌 충신과 지사가 수수방관하겠는가?…” (정약용·‘경세유표’)

다산 정약용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을 멸망하게 될 위기 상황으로 보았다. 그는 일부 관리들이 주장했던 비용 절감이라는 처방으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근본적인 개혁만이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어떻게 조선을 구할 생각을 했을까?

Q. 왜 실학이 필요했을까요?

A.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거치며 조선은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변하게 됩니다. 양반에서 농민까지 절저한 피라미드 신분제는 왜란을 거치며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모내기법의 확산 등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민 중에서도 부자 농민(부농)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거치며 일부 양반들은 몰락했습니다. 소설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처럼 평범한 농민 수준으로 가난해지기도 했습니다. 상업에 종사하여 큰돈을 번 상인이 나넓은 땅을 소유한 부농이 가난한 양반을 보는 눈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지배층 관료들은 이 모습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분제를 뒷받침하는 성리학을 도리어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리학은 점점 교조화되어 거의 종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윤휴나 박세당처럼 ‘사문난적(斯文亂職)’으로 몰려 죽거나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주인과 노비, 양반과 상민’의 수직적 관계만을 강조하여 사회 변화의 움직임을 억압하려 한 것입니다. 17세기 조선 시대의 ‘꼰대’는 성리학적 명분론만 강조하여 열녀비를 세우고, 효자를 발굴하고, 장자 중심의 예법을 더욱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조선 실학자들은 성리학이 더 이상 조선 후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의 부국강병을 이끌 개혁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Q. 정약용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 정약용은 당시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량이 늘어났으나 남의 땅을 소작하여 무거운 소작료를 내고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면 남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가진 자영농을 육성하는 토지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주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재분배한다는 정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임진왜란에 신분제 흔들리자 지배계급, 예법만 더 강조나서

농업기술 발달해 생산량 늘어도 탐관오리 수탈에 서민삶 피폐

정약용, 자영농 육성책 내놓고 박지원, 상공업 부국강병 강조

약용의 생각이 공산주의 토지개혁과 비슷하다고요? 결과는 같지만 그 생각의 시작은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은 어릴 적부터 성리학을 깊이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는 지금의 성리학이 공자, 맹자 등 성현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조선의 모습을 공자께서 보셨다면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셨을까?’를 고민합니다. 공자와 관련된 초기 유교의 학문과 역사를 집중적으로 보면 정약용은 중요한 내용을 찾습니다. 공자는 당시 혼란했던 춘추전국시대를 비판하며 그 바로 직전의 ‘주나라’ 시절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주나라는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정전제가 실시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정약용은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습니다. “공자께서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구나!”

정약용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농사를 짓는 여전론을 제시합니다.

Q. 박지원은 왜 다른 주장을 할까요?

A. 정약용을 비롯한 일부 실학자들은 백성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토지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했던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은 당시 권력에서 점차 밀려나던 남인들이었고 정약용을 제외하면 관료도 아니었기에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실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지개혁을 통해 땅을 분배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날 것이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권력과 땅을 많이 가졌던 노론 쪽 사람들이 많아 토지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백성이 농사만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책상을 만들고, 누군가는 감자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상공업을 장려해야 진정한 조선의 부국강병이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상공업이 발달했던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북쪽의 나라(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그들을 ‘북학파(北學派)’라고 불렀습니다.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대표적인 북학파 실학자입니다.

Q. 정약용, 박지원 등이 죽은 뒤 실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실학자들의 전성시대는 정조 임금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정조는 급진적인 사회개혁론에 가까운 실학을 체택하지 않았지만 실학자들의 비판적 의견을 크게 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양한 실학자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정조가 죽고 얼마 뒤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단지 왕의 외척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갖게 된 세도 가문은 ‘비판’을 두려워하여 사회개혁론을 탄압합니다. 기존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합니다. 실학자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가문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실학자들은 간접적인 비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19세기 실학자들은 세도 가문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탄압을 덜 받는 고증학적 방식에 의존하여 다양한 책을 저술합니다. 그 가운데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를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합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김정희의 ‘금석과안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유희의 ‘언문지’, 김정호의 ‘대동지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텅장’은 그만… 돈 넣으면 세금 돌려주는 통장이 있대



하서윤 기자의
팀재테크 첫걸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하는 만큼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티이미지뱅크

절세통장 3총사

연금저축·IRP 가입 땐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

ISA는 비과세 만능통장
투자 손익 따져서 과세

밀줄 짹 투자 노트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을 먼저 차감해주는 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많다.

세액공제: 납부세액을 다 계산한 뒤 마지막으로 빼주는 항목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세금은 정부가 국가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맞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 생활에 대비해 미리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은퇴자가 쏟아지면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연금 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투자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지정된 ‘텅장’을 만들고 그 계좌를 통해서 정해진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특히 재테크를 시작할 때 대표적인 ‘절세 통장 3총사’를 잘 이용하면 남들보다 플러스알파 (+α)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① 연금저축

학생 여러분은 아직 경제활동을 하기 전이라 세금에 대해 따로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일단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직원들 동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개인별로 공제받는 항목을 따로 신청하면 미리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 납입액 일부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펀드, 보험,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면 일반 공모펀드나 상장지수 펀드(ETF)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연말에 최대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를 적용하게 되는데 600만원까지 적립을 했다면 연말정산 때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 이외에 연말에 100만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하니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총급여가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율은 13.2%인데 1년에 600만원을 투자했다면 연말에 79만 2000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결국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액을 그대로 뺏어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세액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② 개인형 퇴직연금(IRP)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직접 수령을 했는데 이때 문제는 회사가 망하거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퇴직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평소 직원들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돼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직원들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해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면 회사에서 쌓이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 자금을 적립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원까지 가능한데, 보통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씩 나눠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로 채권이나 펀드, ETF에 투자할 때는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 편입해야 하는 등 투자종목 제한이 있습니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표적 절세통장 중 하나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는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지만 하나의 통장에 예금,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면서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만능통장’으로 통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 유형에 따라 200만~400만원이고 비과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이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계좌 종류 가운데 중개형 ISA는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어 펀드는 물론 채권이나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계좌 내 각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로 500만원을 받았고 주식에서는 300만원 손해가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예금이자 500만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했지만 ISA에서는 예금이자 500만원에서 주식 손실 300만원을 뺀 2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N ETF로 승부하라’ 저자

인간은 갈대라는데…‘마음’이란 무엇일까



한종만 강사의
일상에서 찾는 철학의 역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근대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세계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를 이렇게 요약했다. 파스칼에게 인간은 갈대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세계의 일부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나머지와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능력이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유하다는 생각은 인간에게만 ‘마음’이 있다는 더 넓고 오래된 생각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인간이 신체와 구별되는 마음, 정신, 이성, 의식 등을 가진다는 생각도 오래전부터 꾸준히 발견된다. 기독교는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플라톤은 최고로 좋은 이데아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영혼이 신체의 감옥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가 육체와 분리되는 모든 지식의 토대인 반면 동물은 의식 없이 태엽이 감긴 대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신체와 독립된 정신을 가진다는 것을 의심하게 됐다. 이러한 ‘유물론적’ 생각이 옛날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현대 과학의 발달은 이러한 생각에 불을 더 강하게 지폈다. 신경생리학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이라고 보는 대다수 문제들의 원인이 사실은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문제라는 걸 밝혀낸 듯하다. 예를 들어 단기 기억 상실은 해마의 손상과 연관이 있고 사이코패스는 전두엽 기능과 연관이 있다. 정신현상과 신체 현상 관계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은 최근 까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 나아가 정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신체나 물리적인 자연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 느끼고 생각하는 등 정신적인 상태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가정하자. 철학자들은 마음이 신체 또는 더 나아가 물리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물리주의(physicalism)라고 부른다. 물리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심리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는



© 키티아이미지뱅크

모든 감정이나 의식은 ‘물리적 자극’이란 주장 강해져 만약 좀비가 존재한다면 회노애락 같은 마음은 없어 AI가 인간 흉내내는 시대 본성에 대한 논쟁은 진행중

사실 물리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느낌은 정신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런 느낌은 사실 얼굴의 징그림이나 C-신경섬유 활성화 같은 물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이렇듯 정신적인 이야기를 물리적인 이야기로 완전히 대체하는 작업을 환원(reduction)이라고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을 환원적 물리주의자라고 한다.

하지만 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적인 것에 물리적인 것 이상이 있다는 반론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느낌이 얼굴의 징그림에 불과하다면 아픈 터를 내지 않고 참는 사람은 실제로도 아프지 않다고 해야 하는가? 고통스러운 느낌이 C-신경섬유 활성화에 불과하다면 그런 신경섬유가 없는 문어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가?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물리주의자들은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관계가 환원처럼 강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두 번째 입장을 취하게 되

었다. 그들은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더라도 물리적인 조건이 동일할 때 정신적인 것이 다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변할 수는 없다. 이해를 돋기 위해 나와 원자 단위까지 똑같은 복제인 간이 있다고 해보자. 물리주의자들에 따르면 나와 그 복제인간은 똑같은 지능, 성격 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변할 수 없다. 물리적인 것이 변해야 정신적인 것도 변할 수 있다는 관계는 수반(supervenience)으로 불리고, 정신과 물질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로 불린다.

이 주장은 정말 맞을까? 한 철학자는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에 수반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좀비 사고실험을 제안했다. 우선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보자. 영화 속 좀비는 대체로 공격적이고, 사람을 잡아먹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영거주춤하게 걷는 편이다(물론 좀비를 이와 다르게 그려내는 작품들도 많다. 심지어 영화 ‘웜바디스’(2013)에서는 남자 좀비가 여자 주인공과 연애도 한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좀비는 다음의 특징들이 있는 가상의 생명체다. 첫째, 좀비의 몸은 인간의 몸과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똑같고 겉보기에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행동한다. 말 그대로 인간과 물리적인 모든 점에서 똑같다. 하지만 둘째, 좀비

에게는 어떤 종류의 의식도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좀비에게는 우리가 어떤 색깔이나 소리나 맛을 경험할 때 생기는 특이한 느낌 같은 것이 없다.

좀비 사고실험은 이렇게 진행된다. 첫째, 우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를 상상할 수 있다. 둘째, 좀비가 상상 가능하면 좀비는 실제로도 가능하다. 이는 단지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구현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에바(Eva)’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건 물론이고 웃고 찡그리는 등 표정도 지을 수 있다.

게다가 생명공학이 발전되어서 로봇을 쇳덩이가 아니라 유기체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와 물리적으로 구성이 완전히 똑같은 좀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좀비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이는 어떤 것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하지만 정신적으로 다른 반례가 된다. 좀비는 우리와 물리적으로 똑같지만 정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좀비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시늉은 할 수 있지만 그 맛을 느끼지는 못한다. 결국 좀비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정신·물리 수반은 틀렸다.

최근 ChatGPT 같은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류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다만 좀비 사고실험은 의식이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흉내 내도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시사한다. 어느 죽의 말이 맞을지를 지켜보는 일은 흥미로울 것이다.

대원여고 인문학 강사

한 지붕 두 가족? 연결재무제표가 뭔가요



재무제표의 종류

종류	의미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친 것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재무제표



알쏭달쏭 OX 퀴즈

- 연결재무제표는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친다. ()
- 연결재무제표의 지배주주순이익은 종속기업의 이익 중 실제 지분율만큼의 이익을 나타낸다. ()
-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정답 1. × 2. ○ 3. ○



조은나라 세무사의
너와 나의 회계고리

주식 투자를 위해 관심 있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려고 재무제표를 찾아봤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한 회사에 재무제표가 두 개나 있다. 왜 한 회사 재무제표가 두 개가 있는 것인지, 그중 무엇을 봐야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Q. 한 회사에 두 개의 재무제표가 있는 이유?

A. 선거기간에 받게 되는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재산 상황을 나타내는 표가 있다. 재산상황표에는 후보자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까지 표기돼 있다. 후보자와 가족 각각의 재산을 보여주고, 가족 모두를 합한 금액까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을 100% 보유해서 완전히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을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른 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지배기업이라고 하고 지배를 받는 기업을 종속기업이라고 부른다. 일상생활에서는 지배기업을 '모회사'로, 종속기업을 '자회사'로 부르기도 한다. 지배구조가 여러 단계를 이루고 있을 때 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손자회사'라고 하여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본다.

선거공보물에 개인별·가족별 재산 상황을 나타내듯이 재무제표도 회사별·가족별로 작성한다. 재무제표를 각각의 기업으로 작성하면 별도재무제표, 가족의 재산을 합치듯 계열사를 통틀어 작성하면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Q. 연결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할까?

A. 선거공보물에 적는 후보자의 가족 재산 상황에는 가족의 재산을 전부 기재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 김매일 씨의 재산이 10억원, 자녀인 김경제 씨의 재산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선거공보물에는 김매일 10억원, 김경제 5억원, 합계 15억원으로 기재한다.

연결재무제표도 이와 유사하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의 이익을 함께 적는다.

(주)A는 (주)a를 100% 지배하고 있다. 2023년 (주)A의 이익이 10억원, (주)a의 이익이 5억원이다. (주)A의 별도재무제표에는 (주)A에 관한 사항만 표시하니까 이익 10억원으로, (주)a의 별도재무제표에는 이익 5억원으로 표시한다. 반면 (주)A의

연결재무제표에는 100% 지배하는 자회사인 (주)a의 이익까지 합쳐서 이익을 15억원(=10억원+5억원)으로 기재한다.

(주)B는 (주)b를 60% 지배하고 있다. (주)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B의 이익은 10억원, (주)b의 이익은 5억원이다. 이 경우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분율이 다르므로 (주)B의 연결재무제표의 이익도 다르게 표시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B의 연결재무제표 이익도 15억원으로 표시하며 이를 연결당기 순이익이라고 표현한다.

Q. 지분율이 다르면 이익을 어떻게 구분할까?

A. 주식투자를 시작하려는 이제 씨는 (주)A와 (주)B의 연결재무제표를 찾아보았는데 똑같이 이익이 15억원이라고 표시돼 있으니 두 회사의 연결당기 순이익이 같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주)B가 가지는 실제 이익은 13억원이다. (주)B의 이익 10억원과 (주)b의 이익 5억원 중 지배하고 있는 60%에 해당하는 3억원만이 (주)B에 귀속된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배주주순이익'이다. (주)B의 연결재무제표 당기 순이익 15억원 아래에는 '지배주주순이익 13억원, 비지배주주순이익 2억원'이라고 쓴다.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실제 (주)B에 귀속되는 이익을 파악할 수 있다. 자회사가 여러 개라면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된다.

Q. 한 주만 보유해도 이익 전부 합치는 걸까?

A. 연결재무제표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익을 전부 합치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위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의 이익까지 모두 합친다면 연결당기순이익이 매우 커질 것이다. 보유하는 지분만큼 이익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지배력을 가진 경우만 언급한다.

기업은 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지배력'을 가질 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은 '지분과 반수 보유'를 의미한다. 물론 지분이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피지배기업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분율과 반수, 즉 50%를 초과할 때 지배력이 있다고 본다. (주)c는 (주)c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다가 2023년 30%를 더 보유하면서 60%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분율이 변동해서 연결재무제표에 '(주)c의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이익이 변화한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주)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순이익, 비지배주주순이익이라는 항목을 통해 진짜 지배하는 이익을 표시한다.

글자를 알면 글을 읽을 수 있으나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어의 뜻이나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도 글자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읽을 수 있으나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러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재무제표의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



아하, 과학



김경숙 교수의
톡톡 생명과학

줄기세포, 뼈·지방·근육 만드는 ‘만물박사’

현재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줄기세포이다. 아직까지 적절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희귀·유전 질환이나 퇴행성·난치성 질환을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란 자가복제 능력과 다분화능 (pluripotency)을 지닌 세포로, 특정 환경과 조건 하에서 여러 다른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s), 유도만능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중간엽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s)로 구분된다.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 포배기 시기의 내부세포 고에서 유래하며 가장 우수한 다분화능을 가지고 있으나 윤리적 문제로 인해 활용이 어렵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체세포에 외부에서 인위적인 자극을 주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기관의 세포로 분화 가능한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한 상태로 만든 것이다. 주로 연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간엽줄기세포는 연골, 지방조직, 끝수 등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뼈세포, 연골세포 및 지방세포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치료용으로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아직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30여 년간 많은 연구자의 노력으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적용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신약후보물질의 유효성과 독성 평가 등 줄기세포의 활용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줄기세포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줄기세포의 분화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다. 줄기세포는 다분화능을 가진 세포로 인체 내 이식 후 여러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만약 인체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줄기세포가 분화되지 않는다면 치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종양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줄기세포의 분화능과 분화 방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몰두해오고 있다. 줄기세포의 분화는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포 내 여러 신호전달물질, 유전자, 산소농도, 주변 세포와의 상호관계, 역학적 특성 등이 줄기세포의 분화에 관여한다.

자체의 강성이 분화 방향을 조절한다

몇 년 전 줄기세포의 분화 방향이 줄기세포 자체의 강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 연구자들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3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세포 강성을 측정하고 분화 방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줄기세포의 강성을 측정한 결과 그룹마다 매우 다른 강성값이 나왔는데, 강성이 가장 큰 그룹과 가장 작은 그룹의 차이가 6배 이상이었다. 이는 같은 조직에서 추출해 동일 조건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들도 강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32개 그룹을 지방, 뼈, 근육으로 각각 분화시켰다. 분화의 결과도 그룹마다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룹1은 지방세포로 분화를 매우 잘하지만 뼈세포로는 분화를 잘 하지 못했으며, 그룹2는 근육세포로 가장 잘 분화했으며, 그룹3은 뼈세포로의 분화가 두드러졌다.

그룹마다 분화 방향이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해 각 그룹의 강성과 비교해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됐다. 지방세포로 분화를 잘 하는 그룹1의 강성은 다른 그룹에 비해 낮았다. 반면 뼈세포로 분화를 잘하는 그룹3은 가장 큰 강성을 나타냈으며, 주로 근육세포로 분



관절염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중 한 곳인 연세사랑병원 첨단재생연구실에서 의료진이 줄기세포를 뽑아내고 있다. 매경DB

화하는 그룹2의 강성은 그룹1과 그룹2의 중간값 정도에 해당했다. 즉 줄기세포 자체의 강성에 따라 분화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비슷한 결과들이 이후 많은 연구에서 발표되었다. 줄기세포는 주로 끝수, 텃줄, 뼈 등에서 추출하는데, 이들 조직에서 추출된 줄기세포의 강성이 각각 다르다. 끝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의 강성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텃줄,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순이다. 이들 세 줄기세포를 각각 분화시켜보면 강성이 큰 끝수유래 줄기세포는 뼈세포로 분화를 잘하고, 부드러운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지방세포로 분화를 잘한다.

주변 환경 따라 분화 방향이 달라진다

줄기세포의 분화 방향은 세포가 자라는 외부 환경의 강성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같은 조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중 일부를 강성이 낮은 부드러운 배양접시에서 키우고, 나머지를 딱딱한 배양접시에서 키우면 두 그룹의 줄기세포는 2~3일 내에 전혀 다른 세포로 분화한다. 부드러운 배양접시에서 자란 줄기세포는 주로 지방세포로 분화하고, 딱딱한 배양접시에서 자란 줄기세포는 뼈세포로 분화한다.

우리 몸은 강성이 다른 여러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뇌와 지방이 많은 가슴, 복부 등은 매우 부드러운, 즉 강성이 아주 낮은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팔, 다리, 심장 등에는 근육이 많아 강성이 높고, 뼈는 가장 높은 강성을 갖는 조직이다. 뇌세포, 뼈세포들은 각각 역학적 특성이 다른 조건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어떤 세포를 얻고자 할 때 그 세포가 살고 있는 외부 환경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세포 자체 강성 조절기술은 갈 길 멀어

위 내용을 아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즉,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뇌세포를 얻고 싶으면 강성이 작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주변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한다. 반면 뼈세포로 분화시키고 싶으면 강성이 큰 줄기세포를 단단한 기판에서 키우면 된다. 물론 줄기세포의 분화가 역학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화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또 강성이 다른 세포들을 각각 분리할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 자체의 강성에 의한 분화조절은 아직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줄기세포 주변 환경의 강성을 이용한 분화조절은 히드로겔과 같은 물질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돼 임상 적용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물고기 질병까지 예측 '똘똘한' 블록체인



정길호 박사의
재미있는 ICT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기술의 진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I 적용은 데이터 관리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와 이용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데이터 분야에서 AI의 발전과 사례, 블록체인 기술 등향에 대해 알아보자.



Q.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A. 우리는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팅 시스템 파워의 발전으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가공이 쉬워지면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다. AI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덕분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은 이러한 머신러닝의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꼽힐 뿐만 아니라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빅데이터는 AI가 도움을 주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물론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지하에 묻힌 광물을 찾듯 데이터에서 숨겨진 새로운 가치를 찾는 데이터 마이닝(mining)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인 캡제미니(Capgemini)에 따르면 AI 자동화기업의 46%가 데이터 확보에 큰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관리방안은 꼼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 성공 기업의 사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기업문화로 수용할 때 성공 가능성 커진다. 스타트업의 경우 데이터의 활용이 기업 경쟁력,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기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Q. 블록체인 기술이란?

A.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내에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아주 뛰어난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연결된 블록에 각종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추가만 가능해 삭제나 편집은 불가능하다. 블록에 저장된 거래내역(transaction)은 체인 형태로 만들어져 전자식 서명이나 공개키, 해시함수 등 보안기술을 활용해 컴퓨터에 복제한 뒤 저장한다. 아울러 거래되는 내역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 검증된다. 거래되는 내역은 서로 공유하니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방지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라고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기업에 필요한 주문이나 결제 시스템, 계정의 생성 등을 추적하기 위해 변하지 않거나 변경이 힘든 장부(원장)를 만든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 높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리먼브리더스 사태는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피해 많은 사람이 직접 분산화된 원장을 운영 관리하는 기술개발로 이어졌다.

'웹 3.0'이라는 개념도 화두다. 탈중앙화, 개인의 콘텐츠 소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이라고도 불린다. 2010년대 처음 등장한 시맨틱 웹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거대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 중인 현재의 중앙집권화된 인터넷 환경을 바꿔 탈중앙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Q. '일의 미래'에도 등장

A. 최근 탈중앙자율조직 또는 분권자율조직으로 알려진 '다오(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다오는 인터넷상 추가적인 신뢰 보증이 없어도 다수가 협업하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이용하게 되면 특정 사람이 중개하거나 개입함이 없이 프로그램화하고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실행이 가능해진다. 공통된 목표 실현을 위해서 암호화된 지갑을 함께 공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셈이다.

여기에서 발생한 가치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구성원들 간 나눔도 가능하다. 기업에서는 자금 운용이나 코드 수정 등 중대한 의사결정이 분산되고 투명한 보안 시스템 아래에서 이뤄질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준다. 최근에는 AI가 ICT의 대표선수로 비타민처럼 모든 산업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 협업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장소, 방법 등 일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 블록체인과 같은 ICT는 기업 자원의 획득이나 운영, 의사결정, 수익의 공동배분, 책임의 부여 등 각 단계 전반에서 기업영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Q. 연구진 새로운 분야 개척 중

A. 국내 연구진은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 확장성과 분석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 중이다. 연구진은 이달 초 넘치와 같은 어류의 질병 모니터링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큰 관심을 받았다. 양식업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어류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성과는 제주도에서 수행한 어류 개체 영상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수집한 질병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연구진은 양식장에서 활용한 넘치 사진과 다양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향후 빠른 어병 검색과 분석을 통해 질병 발생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관점에서 넘치 데이터 수집부터 질병 진단, 항생제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실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해 시스템의 유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블록체인과 비교해 5% 이하의 저장 공간만을 사용해 대규모 거래내역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간 효율과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한다. 사용자가 질병이 의심되는 넘치를 스마트폰으로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AI 기술을 활용해 증상 및 질병 인식 결과를 제공하고 이후 질병 관리사가 항생제 처방 등의 전문적인 조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ETRI 출보실장

아하,
과학



인권 감수성, 아동·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첫발



이경관 연구원 이투스북

영화 '가버나움'을 통해 본 인권

영화 '가버나움'은 201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영화는 '자인'이라는 소년이 돌봄과 책임을 행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카메라 앵글은 어린아이인 자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베이루트 빈민가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빈곤과 난민 등 인권 문제도 영화에 등장한다. 세계 인권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인권 보장과 현법' 단원에 수록돼 있다. 지구 공동체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번 시간에는 '가버나움'에 등장한 인권 문제 가운데 레바논의 아동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실태 문제를 살펴보자 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아동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실태까지 들아본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자.

영화에 재현된 아동 인권의 현실

영화 주인공인 자인은 또래에 비해 작은 체구를 지닌 소년이다. 출생 기록도 없으며 부모조차 자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른다. 자인은 육설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자녀들 앞에서 흡연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9명의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자인은 자기 몸보다 큰 가스통을 배달하는 등 매일 노동력을 착취당하지만 정성껏 동생들을 돌본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경을 시작한 여동생 사하르가 집주인이자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아사드에게 시집을 가게 된 사건을 계기로 집을 뛰쳐나온다.

실제 레바논에서는 태어난 첫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부모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한다. 레바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까지이지만, 자인과 같은 미등록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결혼에서도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최소 나이가 없다.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9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 극소수의 집안에서는 조흔 문화 때문에 부모 동



의가 없어도 14세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한다.

열악한 환경의 가정에서 자란 자인과 같은 미등록 아동들은 주로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범죄, 절도와 같은 위법적인 활동과 지하경제, 암시장과 같이 정부에서 미처 포착하기 어려운 경제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영화에서 자인은 부모 이름을 대고 악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받아와 진통제를 뺏은 물을 웃에 흡착시켜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판매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인은 영화 내내 거의 웃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도 열악

에티오피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인 '라힐'은 작은 테마파크의 청소부로 일하며, 판잣집에서 아들 요나스와 살고 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가짜 체류증이 만료되자 브로커인 아스프로에게 새 체류증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라힐은 어렵게 돈을 마련하지만, 경찰에 체포된다. 아스프로는 체류증 비용을 더 높게 제시하거나, 그녀의 아들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부추긴다. 체류증을 미끼로 아이를 인신매매에 동원하려던 아스프로의 수작이었던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 이민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레바논 내 25만여 명의 이주 가사노동자 중 3분의 2가 직

장에서 한 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보복이나 추방에 대한 위협, 두려움 때문에 고소 제기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철회하기도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과연 한국 사회는 아동과 이주근로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을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2012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은 이어져 왔다. 전문가는 '한국은 아동을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의 일부 혹은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이들의 인권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각지대 방지, 아동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가치관 확립 등이 필수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은 어떨까?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5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당수는 단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며 우리 사회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올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불법체류자 문제'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기업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기본적인 법 교육 강화,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 해소하는 프로그램 개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영화 제목인 '가버나움'은 예수의 기적이 행해진 이스라엘의 도시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멸망한다는 예언을 들었고, 6세기에 몰락했다. 영화는 베이루트 빈민촌의 혼돈과 기적을 동시에 보여준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이 무시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기적'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비롯한 사회 교과 학습을 통해 우리 주변과 세계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 소양을 기르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인권 관련 도서 및 다큐멘터리, 학교 현장 등에서 실시되는 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작정 대세 따르지 말자… 수학 표준점수제 활용법



박성중 강사의
신기한 수학교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학생들은 모든 과목의 시험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과목이고, 나머지 과목에서 학생들이 임의로 골라서 응시하는데요. 당연히 과목마다 응시하는 학생들이 서로 달라서 과목 간 난이도를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이지만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따라서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영역에서 원점수는 각 과목의 난이도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점수는 100점 중에 몇 점을 받았는지(탐구과목은 50점 중에 몇 점을 받았는지)만 알 수 있을 뿐, 학생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나 과목별로 무엇을 더 잘 봤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표준점수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표준점수는 각 과목 응시자들의 평균과 점수 분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점수이기 때문에 원점수에 비해 서로 다른 과목 간에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학생들은 수학 영역에서 공동과목과 함께 확률과 통계(이하 확통),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공동과목+선택과목 구조하에서는 기존에 쓰던 표준점수제를 유지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이라는 방식을 거친 후에 수학 영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표준점수가를 산출합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자료집 참고). 그런데 조정된 표준점수 산출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공동과목 평균 점수가 높다면 같은 점수임에도 더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로 기재되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알고 있는 점수는 원점수이고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원점수를 기반으



로 표준점수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수능 수학이 공동과목+선택과목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라도 표준점수와 등급이 달라집니다. 같은 선택과목에 같은 원점수를 반더라도 공동과목과 선택과목 중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었는지 점수 계산 공식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지기에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적분 선택자의 표준점수 만점이 확통 선택자의 표준점수 만점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권 인문계열 학생들이 확통에서 만점을 받는 것보다 미적분을 선택해 만점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설혹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사회 탐구 응시자의 10% 넘는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고 지난 3년간의 자료에 비추어보면 인문계열 학생들 중 미적분, 기하 선택자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2024·2023·2022·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챕터 결과 보도자료 참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미적분 선택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문제 난이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오답률 상위 3문항

구분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문항 번호	오답률	오답률
30	96.3%	86.5%
29	93.2%	83.4%
28	84.7%	58.4%

* 자료=EBSI

위 표는 EBSI 홈페이지에서 이번 수능 선택과목 문제 오답률 톱3를 모은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수학 원점수 평균은 미적분 선택자가 확통 선택자보다 약 20점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적분과목의 오답률이 저렇게 높다는 것은 두 선택과목 간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량의 차이입니다. 단순 공부량 측면에서 보자면 미적분과목은 확통 학습량의 두 배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험을 보는데 미적분을 선택하면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학습량의 차이는 다른 과목의 학습량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최종 성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공평하고 미적분을 선택해서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과목 점수를 올리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수학 한 과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이 지금 시험을 봐도 1등급이 나올 정도라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공동과목의 22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8문제를 풀지만 결국 학생들은 같은 22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상위권 친구들을 기준으로 확통 8문제에 25분 정도, 미적분 8문제에 3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공동과목을 푸는 시간이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10분이나 더 주어지게 됩니다. 수학 시험에서 10분의 차이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더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과 중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느 학교를 지망하는지에 따라 오히려 확통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목을 택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선택과목에 쏟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공동과목 시간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담당 선생님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미적분 선택을 추천할 수 있는 인문계열 학생은 이미 다른 과목에 대한 준비가 거의 끝나 있어 수학에 시간을 많이 쏟아도 상관없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방향은 각 학생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성향이 다르고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 모집 요강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그동안 지켜왔던 학생들을 경험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니, 주변에 계신 여러분을 잘 아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대치에스원 수학강사

선행학습 아무리 바빠도 이번 겨울 방학엔 3가지 꼭 챙기세요

gettyimagesbank

'휴식'. 휴식이란 '지속된 활동에서 잠시 멈춤을 통한 회복의 순간'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한자로는 '休息'·'쉴 휴'와 '쉴 휴'가 결합돼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며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는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휴식에 대해 여러 견해를 밝혔다. 여러 저작을 통해 '휴식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심신의 건강과 균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휴식을 단순한 게으름과 구분했으며 효과적인 활동과 생산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봤다. 특히 '휴식은 활동을 위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휴식이 단순히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정신적·육체적 준비 과정이라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휴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휴식과 활동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 삶에서 휴식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수험생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들에게 휴식은 단순한 여가 시간을 넘어 창의력과 성장에 필수적 요소다.

'올바른 휴식'의 중요성

우리는 휴식을 단순한 놀이나 쉼으로 여겨지만, 실제 휴식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휴식은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증진, 기억력 및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뇌와 몸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로, 충분한 휴식 없이는 성장에 방해받을 수 있다.

휴식은 수험생의 학업 성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심리학회는 휴식 시간

이 학업 성과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휴식이 창의적 사고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휴식은 특히 장기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동기를 제공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휴식, 특히 '올바르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은 단순 여가를 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수면, 독서, 운동, 게임,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전전한 휴식 활동은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으며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겨울방학이라는 장기 휴식 기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중대한 기회가 된다.

겨울방학, 학습과 휴식 균형이 중요

#1.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

휴식의 가장 근본은 수면, 즉 잠이다. 겨울방학이라고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몰아서 자는 것은 금물이다. 적절한 수면 시간과 규칙적인 스케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특히 수면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너무 늦게 잠들거나 자기 직전까지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복잡한 게임, 자극적인 유튜브 시청 등은 금물이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 학습과 휴식의 명확한 구분

겨울방학 동안, 일주일 또는 하루 단위로 세분화된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 수업을 제외하고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서 자율

학습하는 시간에도 학습 시간과 휴식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2~3시간 집중해서 공부한 후에는 휴식 시간을 30분 가량 갖는 것이 좋다. 휴식은 스스로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이며 학습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면 집중력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3. 결국 체력 싸움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력이 우수한 학생이 더 높은 학업 성적을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같은 핵심 과목의 시험 성적에 더욱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은 인지 능력, 자기 조절력, 실행 기능, 기억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높은 학업 성적과 건강한 신체 상태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뒷받침한다.

입시 승패는 체력에 달렸다.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과목을 학습하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최상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학습 시간 경쟁이 필수다. 체력은 집중력을 뒷받침해주는 근원적인 힘이다. 겨울방학 기간 휴식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향상하는 것에 신경 써보자. 튼튼한 체력이 내년의 학업 성적, 더 나아가 수능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단순히 학교를 가지 않는 기간, 혹은 쉬는 기간이라는 막연함을 버리고 자기 계발과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중대한 '투자의 시기'로 간주해야 한다. 이 귀중한 휴식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2024년을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로 시작해보자.

손웅철 원 커뮤니케이션 대표



‘빈칸=주제’ 늘 일치하지 않아…‘부정어구’ 꼼꼼 확인을



김범구 이투스 강사의 영어특강

빈칸 추론: 부정어구

오늘은 빈칸 추론의 고난도 유형 중 하나인 ‘부정어구’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 학생들이 ‘빈칸=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빈칸에는 주제와 반대되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부정어구가 존재하는 경우다. 따라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부정어구가 들어 있는지 않은지, 주제와 반대되는 맥락이 정답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 문제로 직접 확인해 보자.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23 수능 31번]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s journalism, especially in the medium of print. In discharging their usual responsibilities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reporters' accounts of sports events are eagerly consulted by sports fans, while in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of covering sport in its many forms, sports journalists are among the most visible of all contemporary writers. The ruminations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are much sought after by the major newspapers, their lucrative contracts being the envy of colleagues in other 'disciplines' of journalism. Yet sports journalists do not have a standing in their profession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s or of their pay packets, with the old saying (now reaching the status of cliche?) that sport is the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still readily to hand as a dismissal of the worth of what sports journalists do.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produces the paradoxical outcome that sports newspaper writers are much read but little _____.

* discharge: 이행하다 ** rumination: 생각 *** lucrative: 돈을 많이 버는

- | | | |
|--------------|-------------|------------|
| ① paid | ② admired | ③ censored |
| ④ challenged | ⑤ discussed | |

자, 우선 빈칸 추론의 3단계를 거쳐보자. ‘식별’부터 해보자.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produces the paradoxical outcome that sports newspaper writers are much read but little _____.

이렇게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은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많이 읽히지만 _____ 못한다는 역설적 결과를 낸다.

- 빈칸의 주어는 sports newspaper writers다. 스포츠 신문 기자들에 대한 설명을 답으로 넣어줘야 한다.
- 빈칸 앞에 little이라는 부정어구가 나왔기 때문에 단서로 잡는 표현과 반대되는 말을 정답으로 골라줘야 한다.
-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_____ 하지 못한다”. 무엇을 못한다는 것일지 생각하며 단서를 찾아보자.



케이미지뱅크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탐색을 해보자.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s journalism, especially in the medium of print. In discharging their usual responsibilities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reporters' accounts of sports events are eagerly consulted by sports fans, while in their broader journalistic role of covering sport in its many forms, sports journalists are among the most visible of all contemporary writers. The ruminations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are much sought after by the major newspapers, their lucrative contracts being the envy of colleagues in other 'disciplines' of journalism. Yet sports journalists do not have a standing in their profession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s or of their pay packets, with the old saying (now reaching the status of cliche?) that sport is the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still readily to hand as a dismissal of the worth of what sports journalists do.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s journalism seriously produces the paradoxical outcome that sports newspaper writers are much read but little _____.

⇒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가치를 무시당한다는 내용이다.

⇒ 부정적인 내용이다. 스포츠 기자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선택지 대응을 해보자.

- | |
|----------------------|
| ① paid (보상 받지) |
| ② admired (존중 받지) |
| ③ censored (검열 받지) |
| ④ challenged (도전 받지) |
| ⑤ discussed (논의되지) |

여기서 중요한 점, 부정어구 ‘little’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제와 반대되는 말을 골라줘야 한다. 즉, 빈칸에는 긍정적인 어감의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잡은 단서는 ‘존중 받지 못한다’였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말은 ‘존중 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부정어구는 ‘식별’ 단계에서 제대로 파악해 두기만 한다면, 정답을 고를 때 큰 어려움은 없다. 평가원에서 보통 빈칸 추론의 난도를 높일 때 부정어구를 활용한다. 학생들이 놓치고 지나가기 쉬우며, 본능적으로 주제문을 정답으로 고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부정어구는 바로 이런 심리를 노리고 출제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적힌 부정어구를 잘 확인하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는 부정어구의 다양한 종류를 자세히 다뤄보겠다. 꼭 부정적인 어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야만 부정어구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운동하다 이 빠졌을 때…‘30분’ 골든타임 기억하세요

농구나 축구,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하다가 앞니가 부러져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가 아예 통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이나 야외 활동 중 치아에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면 아프기도 하지만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TV나 뉴스 등에서 손상된 치아를 우유나 물에 보관해 치과에 빨리 가라고 들은 기억이 아렴풋이 있는데 정확한 대처요령을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아가 부러졌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상태인 치아가 뿌리째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치아를 가지고 가급적 빨리 치과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에 불순물이 묻어 있지 않고 입안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라면 허 밑이나 치아와 불 사이 등 가급적 입안에 넣어서 가면 좋습니다.

만약 입안에 피가 나거나 구강 내에 넣어 올 상황이 안 된다면 자신의 침이 들어 있는 작은 용기나 우유, 식염수 등에 담아 오면 됩니다. 그런데 치아에 이 물질이 묻어 있거나 깨끗하지 않은 경우라면 치아를 먼저 우유나 식염수 혹은 수돗물에 가볍게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급적 치아의 뿌리 쪽은 건드리지 말고 치아의 머리 부분을 잡는 것이 좋으며 너무 세게 문질러 씻으면 안 되고 가볍게 흐르는 물에 불순물만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의 뿌리 쪽 잔존 세포들이나 미세한 인대가 붙어 있어야 빠진 자리에 그대로 심었을 때 잘 복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30분 내에 치과에 도착할 수 있다면 해당 이를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동 중 가장 빈번하게 치아에 생기는 외상은 앞니가 부서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서진 치아의 파절면을 반드시 가지고 치과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파절편이 비교적 크고 단면이 깨끗하다면 그대로 다시 재부착시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충치치료에 사용하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부서진 부분을 다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정도가 심하고 많이 시리다면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썩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빠지는 경우나 반대로 잇몸 쪽으로 밀려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가 잇몸 속으로 밀려들어가



계타이미자뱅크

**뿌리 살아 있어야 제자리에 잘 붙어
머리 부분 잡고 가볍게 세척한 뒤
우유·식염수 담가 빨리 치과 가야
부서진 범위 작고 시리지 않아도
외상 생기면 반드시 치과 방문을**

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빠지는 탈구나 밖으로 밀려나오는 정출보다 예후가 안 좋습니다. 치아 뿌리 쪽과 뿌리를 잡고 있던 치조골 모두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부서진 범위가 작고 시린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치아 쪽에 외상이 생기면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겸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겸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치아의 뿌리가 부서진 경우도 있고 치아의 신경이 손상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엑스레이 겸사 등을 통해 추적 관찰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을 할 때는 격투기 선수들처럼 마우스가드를 착용하고 하면 좋습니다. 특히 앞니가 남들보다 많이 뛰어나온 사람은 신체 접촉이 덜한 운동을 하더라도 넘어졌을 때 치아 손상이 생길 위험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복싱이나 유도 같은 운동뿐 아니라 자전거를 탈 때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뜨거운 물을 이용해 간단히 착용하는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많이 팝니다만 가급적 치과에서 제작한 마우스가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우스가드는 적절한 두께와 강도로 외력에 대한 완충 기능이 필수이며 치아와 치아가 물리는 교합관계가 고려돼야 제대로 된 보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강도가 약한 마우스가드는 외력에 대해 제대로 치아를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권민수 잡실 워드치과 원장



“미래 과학자 모십니다” 청소년 창의발명대회

매일경제와 MBN이 GIA 미네르바 바칼로레아와 손잡고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이끌어갈 세계의 미래 청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원더차일드(WONDERCHILD) 창의발명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로봇, 모빌리티 등 총 5개 분야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마

감은 2024년 1월 15일까지다.

개인 및 2인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창의성, 사회적 영향력, 실용성 및 경제성을 평가해 예산 심사를 한다. 최종 본선 심사에서는 시제품 평가, 구성 및 발표 능력, 아이디어 적합 여부, 인재 성장성과 자질 평가 등으로 순위를 가르게 된다. 참고로 초등학생은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반 짹이는 아이디어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초등학교 저학년부, 고학년부, 중학생

부, 고등학생부로 나눠 한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대회를 주최하는 매일경제 담당자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의 역량인 창의력과 독창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매일경제 창의발명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혜순 기자

은행 횡재세 거둬 취약층 지원을

고금리 기조에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쟁긴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해 서민 고통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광주광남중 3학년 이예은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31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이같은 초과 이윤을 달성한 것이다.

고금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은 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서민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빚은 1900조원에 육박했다.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해내지 못한 지 7년 이상 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0곳을 넘었다.

은행 횡재세는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쓰일 필요가 있다. 불어난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기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 과도한 빈부 격차는 국가 경제에 여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조세 정책의 목표가 소득재분배에 있는 만큼 은행에서 거둬들인 횡재세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7곳 가운데 24곳이 자국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 초 이후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고 제안된 사례만 30건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종과세 논란 등으로 횡재세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시장에 초래된 자원 배분 왜곡은 정부가 개입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신도시 특별법, 수도권 솔림 우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지방이 소외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메리칸스탬프랩 10학년 김빛나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가 조성된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종상향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도시 정비와 주택 공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아 도시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풀어질 수 있다. 도시 확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젊은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과 국가 전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두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방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방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인데 새로운 도시 혜택이 수도권 지역에만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저해된다.

정책 결정자들은 법안을 추진하고 실행할 때 지방 소외를 방지하면서도 노후도시를 정비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 소외를 방지하고 도시 정비·주택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우울증 60% 늘어 '숨통' 절실

학업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이 많다. 입시보다 자아를 우선시하도록 학생 스스로 노력하고 어른들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상지미래경영고 2학년 장유리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이 증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만 6~17세 아동·청소년은 총 3만7386명이었다. 2018년(2만3347명)과 비교해 60.13%(1만4039명) 늘었다. 서울시는 매년 50여 명의 10대 청소년이 자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대 청소년의 자살 사망자는 5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7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생명지킴이 교육, 교내 자살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 사후 중재 프로그램 '희망의 토탈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기총 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7월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초·중·고교생 25.9%가 학업 성적 때문에 자살·자살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 청소년들이 학벌 지상주의와 함께 '대학 가기 전까지만 참고 공부하라'는 어른들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압박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학생들 스스로 여행도 다녀보고, 해보지 않았던 분야의 일을 경험해가면서 자신이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일이 입시에 우선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의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 어른의 지지와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도 마련돼야 한다.

SNS 속 자녀 사진, 범죄 표적 될라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세어런팅(Sharenting)은 유괴, 신원 도용, 소아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울산여자상업고 2학년 이채영



세어런팅(Sharenting)은 'share(공유하다)'와 'parenting(양육하다)'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부터 카카오톡 프로필까지 자녀의 사진·영상 업로드가 이에 해당한다.

세어런팅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아이의 정보 노출은 큰 문제다. 게시물을 내린다고 해도 누군가 이미 저장한 후일 수 있고, SNS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부모가 올린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이 데이터로 이용되고 목소리까지 복사돼 사기·불법 사이트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는 광고를 만들었다.

또 SNS에 올라온 게시물로 아이의 신원 파악이 가능해 나이, 학교, 집, 친구 등을 알아내 유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는 자신의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인지해 쉽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레이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아이들이 겪을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가 세어런팅 때문에 발생할 것이며 피해 규모는 1년간 1조2000억원가량으로 예측했다. 호주 사이버 안전위원회는 소아 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된 사진 중 절반이 SNS에 올라온 것이라고 발표했다.

47회 민매경 TEST

시험일 |
2024년 5월 25일 (토)

접수기간 |
4월 8일(월) ~ 5월 13일(월)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민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